

김영섭 KT 대표이사, 국정감사 세 번째 소환

전 고객 위약금 면제·유심교체 촉구

KT, 소액결제·개인정보유출 피해에 무료데이터, 통신요금 지원 등 나서
전체 가입자 위약금 면제엔 선 그어
시민단체 “기본 의무 실패” 반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서 세 번째 소환됐다. 이날 KT는 피해자 보상책을 내놨지만 시민단체는 “근본 대책 없는 미봉책”이라며 전 고객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영섭 KT 대표가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날 KT는 무단 소액결제·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5개월간 월 100GB 무료 데이터와 15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혹은 단말기 교체비 지원을 발표했다. 단말 교체를 원할 경우 KT 신규 단말 구매 시 약정할인에 추가 할인을 적용하며, 통신요금 할인은 월 요금에서 차감된다. 회사는 대상자들에게 다음 주 추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KT는 “전국 2000여 매장을 ‘안전 안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고, 피해 고객에게 3년간 ‘KT 안전 안심 보험’을 제공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조치도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감장에 선 김 대표 또한 위약금 면제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이미 해지한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관련 “소급한 사람들도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훈기 더



김영섭 KT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해 귀책사유가 있다. 번호이동하는 모든 가입자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것”으로 한정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 피해 고객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KT의 조치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 침해가 아니라 통신서비스 기본 의무 실패”라며 “KT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

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KT의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KT가 자율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KT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81%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가 즉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Azure)와 체결한 클라우드 계약에 대한 데이터 주권 침해 논란과 ‘토털영업TF’에서 일어난 연이은 사망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이훈기 의원이 “미국의 클라우드액트(Cloud Act)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 원할 경우 모든 정보를 줄 수 있다”면서 “KT와의 계약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MS와 계약 당시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는 전부 다 국내 리전(지역)에 있다”면서 “망에 관리되는 데이터는 전부 다 고객이 갖고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주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토털영업TF에서 일어난 6번의 직원 사망에 대해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려됐다고 말했는데 결국 연쇄적인 사망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토털영업TF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엔씨소프트 조감도.

/엔씨소프트

게임업계, 신작 라인업 등 출품작 공개에 기대감 ‘쑥’

지스타 2025

내달 13~16일 부산 벡스코서 열려
엔씨소프트, ‘아이온2’ 시연부스 운영
넷마블·크래프톤·웹젠 등도 출격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5’ 개막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웹젠, 네오위즈 등 주요 게임사들이 신작 라인업과 현장 프로그램을 속속 공개하며 열기를 끌어 올리고 있다.

29일 지스타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스타 2025’는 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올해 메인 스폰서를 맡은 엔씨소프트는 5종의 신작 라인업을 공개하고, 공식 부스 조감도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엔씨소프트는 내달 19일 출시 예정인 ‘아이온2’ 시연 부스를 운영하며, 관람객이 PC와 모바일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과 던전 ‘우루구구 협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픈월드 택티컬 슈터 ‘신더시티’도 파괴된 서울을 배경으로 한 캠페인 모드 업데이트 버전을 공개하며, 차세대 타임 서바이벌 슈터 ‘타임 테이커즈’, 애니메이션 액션 RPG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등이 함께 출품된다. 미공개 신작 1종은 현장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넷마블은 ‘프로젝트 이블베인’, ‘나 혼자만 레벨업: KARMA’, ‘일곱 개의 대

죄: Origin’, ‘몬길: STAR DIVE’, ‘SO L: enchant’ 등 5종을 선보인다. 총 112부스, 145개 시연대로 구성된 현장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협동 시연, 개발자 토크쇼, 코스프레 쇼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은 서새봄·옥냥이·파호니 등 인기 스트리머가 참여하는 타임어택 챌린지를 마련해 팬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크래프톤은 이번 지스타에서 ‘팻월드 모바일’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일본 포켓몬의 히트작 ‘팻월드’ IP를 기반으로 펫지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이 게임은 ‘팻’ 수집·육성, 건축·생존 요소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장에는 배틀그라운드 IP 체험공간 ‘카페 펫지’와 각종 미니게임·이벤트가 운영된다.

웹젠은 전략 디펜스 신작 ‘게이트 오브 게이트즈’를 공개하고, 자체 개발작 ‘테르비스’ 및 ‘웹젠 프렌즈’ IP를 활용한 가족형 이벤트 존을 마련한다.

네오위즈는 퍼블리싱작 ‘산나비 외전: 귀신 씌인 날’을 단독 부스에서 시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관람객은 현장 체험 후 캔벤티, 포토카드 등 굿즈를 받을 수 있으며, MSI 게이밍 모니터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번 ‘지스타 2025’는 대형 신작과 글로벌 IP가 대거 출품되는 만큼, 역대 최대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SKT, 오픈랜 ‘FILM’ 기술 표준화 주도

〈무선망 데이터 수집 고도화〉

AI 네트워크 품질 분석 고도화

SK텔레콤은 글로벌 오픈랜(Open RAN) 표준화 기구인 O-RAN 얼라이언스(O-RAN Alliance)에서 무선망 데이터 수집 고도화 기술 ‘FILM’의 기술 문서를 새롭게 발간하며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O-RAN 얼라이언스는 2018년 설립된 글로벌 개방형 무선접속망 표준화 단체로,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엔비디아 등 전 세계 300여 통신 장비 제조사와 연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SK텔레

콤은 회원사로 활동해왔으며, 2024년에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O-RAN 표준 회의를 주최했다.

SK텔레콤이 발간한 FILM 기술 문서는 AI가 네트워크 품질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신 품질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전체 단말의 평균 성능을 기반으로 분석했으나, FILM은 신호 세기나 위치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단말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수집해 보다 정확한 품질 진단이 가능하다.

이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AI 학습과 추론에 활용돼, 네트워크 품질을 세밀하게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FILM은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여러 제조사의 장비가 혼합된 환경에서도 일관된 형식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SK텔레콤은 2024년 2월 FILM을 O-RAN 얼라이언스에 신규 표준화 피쳐로 제안했고, 같은 해 8월 승인받았다. 이후 표준화 책임사로 참여해 13개 글로벌 통신사 및 장비 제조사와 함께 활용 사례와 기술 요구사항을 정리한 기술 문서를 완성했다. 이는 국내 통신사가 O-RAN에서 피쳐 단위의 표준화를 주도한 첫 사례다.

/김서현 기자

SKT, AI로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한다

‘FAME’ 출시… 신한카드에 첫 공급

SK텔레콤은 사이버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AI 보안 솔루션 ‘FAME’을 출시하고, 신한카드와 첫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FAME은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AI 보안 플랫폼으로, 위치·전화·문자 등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부정 거래 등 금융 사기 패턴을 실시간 탐지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권·공공기관·기업 고객은 FAME을 기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동해 고객 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첫도입 기관인 신한카드는 FAME을 통해 통신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결합, 고객 보호 수준을 높인다. /김서현 기자



박준 SKT AI인텔리전스 사업본부장(왼쪽)과 조문일 신한카드 소비자보호본부장이 FAME 공급 계약서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한 모습./SKT

LG U+-경희대, 네트워크 분석 AI 모델 개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발생지역 특성 자동 판별

LG유플러스는 경희대학교와 협력해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가 발생한 지역의 특성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사람이 직접 분석하던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의 지역별 특성을 AI가 자동으로 식별하고 저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LG유플러스는 산학협력을 통해 별도 현장 조사나 장시간의 테스트 없이도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 네트워크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트래픽 데이터가 주거단지, 오피스 지역, 상업지구 등 어떤 환경에서 발생했는지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분류했다. 이 방식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정확도에도 한계가 있었다.

새로 개발된 AI 모델은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를 입력하면 발생 지역의 유형, 실내·외 트래픽 비중, 시간대별 이용 패턴 등을 자동으로 판별한다. 학습된 데이터의 패턴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구조로, 특징이 명확한 지역에서는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LG유플러스는 이 AI 모델을 통해 전국 네트워크망 관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트래픽의 지리적 특성을 분석해 장비가 필요한 지역에는 미리 증설하고, 수요가 줄어든 지역은 일부 축소해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시간대별 사용량을 고려해 장비 출력을 조정함으로써 에너지 효율도 개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새벽이나 오피스 지역의 야간에는 전력 소비를 줄이고, 성수나 홍대 같은 상권의 주말에는 출력량을 높이는 식이다.

/김서현 기자